

## KIICA와 업무협약체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회(회장 백종진)는 지난 4월 26일, 광화문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원장 김선배, 이하 KIICA) 대회의실에서 KIICA와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필요한 정보자료 공유,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 협력분야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앞으로 협회와 KIICA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IT산업 해외진출 관련 사업의 공동 수행 ▲양 기관의 해외진출 사업의 상호 참여 및 활용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IT산업정보 및 자료의 공유 ▲기타 양 기관의 우호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서로 적극 협력,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백종진 협회장은 "우리 벤처기업들의 기술력이 높은만큼 한미 FTA는 국내 벤처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협회도 이번 KIICA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내실있는 국내 벤처의 해외진출을 돕도록

## 협회, 한덕수 국무총리와 벤처업계 간담회 가져

협회는 당면한 벤처업계의 현안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대정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협회는 지난 9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벤처업계 간담회를 개최, 혁신주도형 경제의 핵심인 벤처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전달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산업자원부 김영주 장관, 중소기업청 이현재 청장 등이 자리하여 업계현황을 청취하였다. 벤처업계에서는 협회 백종진 회장을 비롯 NHN 최휘영 대표, 미라콤아이앤씨 백원인 대표, 배희숙 협회 부회장 겸 여성벤처협회장 등 총 14명이 참석하여 벤처산업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날 ▲그간 벤처생태계 조성에 근간이 되어온 벤처특별법 연장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M&A 활성화위한 M&A 전용 펀드 및 민간중심 M&A지원기관 설치 검토 ▲벤처 엔젤투자활성화를 위한 기업승계제도 및 벤처투자자금의 비과세상속 ▲벤처 글로벌화를 위한 INKE 지원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세제의 합리적 개선 ▲전문CEO의 개인입보제도 완화 ▲S/W 산업 육성을 위한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강화 ▲벤처정책의 방향성 및 지속적 추진 당부 ▲벤처정책의 홍보강화 ▲벤처기업 CEO 교육 확대 ▲중견기업의 중요성 및 역할 강화 국산 SW의 조달가격 현실화 ▲일부 병역특례 비리에 따른 병무청의 IT업체의 병역특례기준 강화에 정부의 신중한 접근 등을 요청하였다.

## 산자부 오형호 차관과 한미FTA 관련 간담회 개최

협회는 지난 3일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산업자원부 오형호 차관과 벤처업계의 한미 FTA 대응에 관련된 간담회를 가졌다. 벤처협회는 사전에 협회 뉴스레터를 통해 한미 FTA와 관련된 업계의견을 수렴, 이를 바탕으로 최근 벤처산업의 현황과 관련 요청사항을 피력하였다.

이번 한미 FTA타결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 확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기대치이다. 현재 벤처기업의 70% 이상이 제조업이고 컴퓨터, 반도체, 전자 등 첨단제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그 간 축적된 강점 활용이 가능하다고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벤처기업의 45% 정도가 이미 해외진출을 하였으며, 약 20% 정도가 수출 또는 지사 설립 등을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상태로 미국의 관세장벽 철폐와 비관세 장벽해소는 대미교역 확대와 신규 진출 확대의 기회로 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들의 글로벌화는 더욱 절실해졌으며,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향후 벤처 특성에 맞는 글로벌 경쟁력제고를 위한 체계적 글로벌화 지원을 산자부에 요청하였으며, 글로벌 네트워크인 INKE를 통한 해외진출사업 활용도 제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협회 백종진 회장을 포함, NHN 이석우 부사장 등 13명의 협회 임원 및 고정석 벤처캐피탈협회장, 배희숙 여성벤처협회장 등이 참가, 벤처업계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 협회 백종진 회장, 일본 IT기업인 대상 특강

협회 백종진 회장은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일한IT경영협회(www.jkit.jp)가 주최하는 <일한IT경영포럼>에 참여, 일본 IT관련 기업인 120여 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강연 하였다. 백 회장은 이날 강연을 통해 한국 벤처산업의 성장모델을 소개하는 한편 한일 벤처기업 간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 이명박 전 서울시장, 협회 내방 및 특강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협회에 방문, 협회 임원들과의 간담회 및 특강을 진행했다. 이 전 시장의 이번 방문은 구로디지털단지의 눈부신 변화와 재도약하는 벤처업계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협회 백종진 회장은 약 30분 가량 이뤄진 간담회 자리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맞이하며 벤처 매출 100조 돌파 및 천억 매출 벤처 숫자의 증가를 언급하며 벤처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에 이 전 시장은 벤처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벤처, 중소기업이 발전함으로써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화답했다.



이후 이 전 시장은 협회 부설 서울벤처인큐베이터를 둘러보았다. 애드써커뮤니케이션(대표 김창덕)에서 직접 게임도 시연해보는 한편, 헬스피아(대표 이경수)의 당노폰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벤처의 재기발랄한 아이디어에 찬사를 보냈다.

한편 이 전 시장은 협회 교육장에서 벤처기업인을 대상으로 열린 특강에서는 '창조적 도전이 역사를 만든다'를 주제로 21C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벤처 등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현재 3.8% 정도인 경제성장률을 7%정도로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에 벤처가 한몫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마지막으로 기업가는 도전 정신을 가져야 하며 도전 없는 발전은 없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도전정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부정책,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새로운 도약을 이루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강의를 마무리 하였다.



## 중국 요녕성 철령경제개발구 시장단 협회 방문



지난 4월 25일 국내 벤처의 활발한 중국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요녕성 철령경제개발구의 장경강 시장조리군 철령시 대외경제 무역국 국장 일행이 협회에 방문하였다. 요녕철령경제개발구는 완벽한 서비스, 저렴한 생산원가로 기업들에게 창업의 최적 조건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이날 방문단은 ▲용지분양특혜 정책 ▲공장건설 특혜정책 ▲자금지원 특혜정책 ▲개발구 재력공헌도에 대한 장려정책 ▲법인대표특수 정책을 설명하였다.

공장이전 등 중국현지투자자 관심있는 기업들은 협회 홈페이지 [www.kova.or.kr](http://www.kova.or.kr)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철령시는 중국 8대 석탄생산기지 중 하나인 철광탄광이 위치한 도시로 요령성, 흑룡강성, 길림성 등 동북 3성과 러시아를 관통하는 관문이며, 시 전체 인구 중 조선족이 6%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